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0:30

주 일 예 배

2024년 4월 14일
[제24-15호]
인도자: 정영섭목사

찬 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같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 배 와 찬 양 다 같 이

☆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 구원으로 인도하는(새찬송가 521장)

- 1.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 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 2.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 3.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후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길 갑시다

☆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대 표 기 도 1부, 2부: 이 정 순 목 자

교 회 소 식 인 도 자

- 1. 2부 예배 신설, 예배에 적극 참여 (주차는 외부에).
- 2. 교사 및 봉사자를 위한 간단한 점심 제공 (4/21부터).
- 3. 모임안내
 -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몽골 단기 선교팀 모임 :주일 오후 1시 30분
 - 목자 코칭 3주차 모임 :주일 오후 1시 30분
- 4. 출산 :임동화/마홍연, 4/13, 득녀

봉 헌 찬송가 380장..... 다 같 이

- 1.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 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 2. 괴론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후렴]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봉 헌 기 도 인 도 자

성 경 봉 독 사무엘하 17장 15-23절 (p.442) 다 같 이

15 후새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16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 왕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터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17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의 엔 로겔 샘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이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드나드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 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

18 그런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탄로가 난 줄을 알고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 곳을 떠나 바후림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19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펴 놓고, 그 위에 짙은 보리를 넣어놓아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였다.

20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방금 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뒤쫓아 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21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였다.

22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 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23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에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 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매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말 씬 선 포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정 영 섭 목사
찬 송 일 상 다 같 이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축 도 정 영 섭 목사

지난 주 헌금자 명단

십 일 조	김용호/김영숙 김철호/진영랑 남도형/이혜지 박노현 박창호/한효주 소재왕/윤은애 심미애 양광진/김선주 연진원/박정현 오광진/이정순 윤길렬 이태훈/김지나 장성훈/김진희 정성기/김현미 정영섭/장복숙 하영화/김경미
선 교 헌 금	김용호/김영숙 김철호/진영랑 심미애 오광진/이정순 이경화 장성훈/김진희 정영섭/장복숙 조정환/김인자 하영화/김경미 동경목장 모르즈비목장 비취켄목장 양곤목장 에르트네트목장
감 사 헌 금	김갑현/이미정 김선효 김용식/연선 김희형/황미아 박창호/한효주 안일홍/정은진 오광진/이정순 윤세연 이규현/김지영 이미숙 이태훈/김지나 정태인/서진경 조정환/김인자 최윤식/김민경 하영화/김경미
주 일 헌 금	강동진/박울리 강민수 강지연 강호곤/이민규 강희선A 김갑현/이미정 김문규/장희숙 김병주/유인선 김삼중/이연화 김성래/김양이 김영업/이성례 김용식/연선 김응렬 김재진/함주영 김철호/진영랑 김희형/황미아 남도형/이혜지 남명규/조맹임 박상희 박정옥 박창호/한효주 백남철 서기성 신동구 신채용 심미애 안일홍/정은진 양광진/김선주 양화진 오광진/이정순 오유진 윤길렬 윤세연 윤세영 윤현선 이노현/신지순 이미숙 이완/박은희 이윤정B 이현아 장성훈/김진희 장영범/김윤신 전성애 전영숙 전태현/김지연 정성기/김현미 정은규/김현주B 정재범 조정환/김인자 최웅 최윤식/김민경 하영화/김경미 한영준/홍에스더 황은혜 무명 예품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 ※ 예배영상이 교회 홈페이지(<http://www.cykc.com>)의 주일설교말씀 코너에 올려져 있습니다.
- ※ 위챗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위챗 아이디 cykc0921 혹은 QR코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중국계좌) 중국건설은행 6217002390027544748 JEONG YOUNG SEOB
- ※ (한국계좌) 우리은행 1002-038-035663 정영섭(청양한인교회)

